

臺灣도挺身隊조사

92.2.9 甲乙

國營방송 사실 밝혀지면 공식사과 요구

【臺北明報】臺灣의교부는 수백명의 中國과 臺灣의 이들이 제2차대전중挺身隊員으로 강제동원돼 일본군의 성적 노략개로 희생됐다는 주장들을 조사중이라고 대만국영 라디오방송이 8일 보도했다.

挺身隊 남북한 최우선 조사

日 官房장관 밝혀

【東京聯合】日本 정부는 2차대전 당시 日王 재가토 정신대 동원이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南北韓을 최우선 대상으로 공식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가토 고이치(加藤紘一)관방장관이 7

일 발표했다.
가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韓國人 정신대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南北韓만

이 日本에 대해 정신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우선 조사 대상이 된 것이라 고 설명하면서 기타 국가들이 연계된 사례들도 성의껏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韓國人 정신대 동원기록 日 冲繩서도 발견

【東京聯合】韓國人 및 日本 오키나와(沖繩)에서 발견된 종군위안부도 일하노록 한 위안소의 이용규정을 담은 舊日本軍의 내부규정 등이 오키나와 우라소에(浦添)市の 市史에 게재돼 있다는 사실이 7일 밝혀졌다. △2면에 관련기사▽

이같은 사실은 전국공립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문부성이 실시중인 종군위안부 관련자료 일제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방위청이외의 곳에서 위안부관련자료의 존재가 확인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는 1984년 3월에 발행된 「우라소에市

史 제5권 자료편 4 전쟁 체험기록」의 제5장에 있는 「일본군의 위안소에 관한 자료」로 이 자료에는 우라소에市에만 위안소가 14군데나 설치됐으며 오키나와배치 일본군이 「각지에 위안소를 병설, 조선인 여성과 오키나와인 妓女를 위안부로 동원했다」고 기록돼있다.

또한 이 자료에는 1944년 11월 오키나와에 배속돼있던 「山根3475부대」가 만든 내부규정과 같은해부터 「石兵團」(제62사단)이 발행한 「石兵團회보」철이 게재돼있다.

北韓 核무기 개발 내년 중반께 가능 美紙보도

【로스앤젤레스聯合】美國로스앤젤레스 타임스紙는 7일 北韓이 핵재처리시설을 완성시키는데는 불과 몇달 밖에 남지 않았으며 핵무기 개발노력이 증진되고 있다고 이시설이 인용된다면 93년중반에는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아널드 캔터 미국무부 정무차관이 6일 상원 외교위원회 東아시아 태평양소위원회에서 북한의 핵재처리시설이 거의 가동단계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